

청담 순호의 지성성과 실천성*

— 客觀의 認識과 對象의 淨化를 中心으로 —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청담 순호(1902~1971)의 불명과 범호의 보편적 의미를 도구로 삼고 그의 생애와 사상에서 그의 지성성과 실천성을 살펴보았다.

순호의 지성성은 '시대와 상황의 인식'이라는 부제로 해명하였다. 순호의 지성성은 열린 사고로 세계의 주체는 '마음'이라고 인식하는 과정, 개운사강원에서 사교와 대교를 보는 교학의 섭렵으로 인식을 확장하는 과정, 교학 위에 참선 수행으로 불교의 진수를 닦는 과정, 호국불교의 전개와 종단의 탈퇴라는 강수에서 그의 지성성이 확인되는데, 청담 순호의 지성은 본질의 지성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청담의 실천성은 '승가와 신도의 정화'라는 부제로 해명하였다. 어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1일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제31회 집중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린 나이에 서당에서의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벗을 응징하거나 독립 만세의 선봉에 서거나 좋지 않은 벗들을 바르게 교정하는 데서 주체의 회복을 실천하는 모습, 청담 실천의 핵심인 정화(淨化)는 나와 남, 나와 승가, 교단, 사회 등에 고루 적용하여 실천하는 모습, 또 국가 사회의 정화를 위해 교단 밖의 타종교나 국사 사회의 정화를 위한 그의 실천은 평생을 일관하는 모습과 교단 조직의 시안인 영산도를 창안하는 모습이나 세계불교지도자대회에 참여하는 모습 등에서 그의 지행합일적인 실천성이 확인된다.

주제어 : 청담, 청담 순호, 마음, 마음 법문, 박한영, 만공, 독립만세, 정화(淨化), 교단정화

- 목 차 -

- | | |
|--------------------------|--------------------------|
| I. 서언 | Ⅲ. 청담의 실천성: 승가와 신도의 정화 등 |
| Ⅱ. 순호의 지성성: 시대와 상황의 인식 등 | Ⅳ. 결어 |

I. 서언

청담 순호(靑潭淳浩, 1902~1971, 이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편의상 청담으로 약칭함)는 20세기를 살다간 수많은 불교인 가운데 어찌면 가장 독특하고 강렬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청담이

한국불교에서 ‘정화’라는 어휘를 불교계에 강렬하게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청담을 교단 정화의 상징,¹⁾ 원력보살과 인육보살,²⁾ 불교중흥의 기수,³⁾ 한국불교 중흥의 등불⁴⁾ 등으로 불렸다. 청담의 사상과 생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담의 저서와 법문,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가 남겨졌는데, 입적 30주년을 맞이하여 『청담대종사전서』 11책이 출간되었다. 청담의 사상에 대한 논문 또한 적지 않게 발표되었으며,⁵⁾ 청담의 마음사상과 선사상에 등에 대한 학술논문⁶⁾ 박사학위논문 들도⁷⁾ 발표되었다.

이 글은 청담의 지성성과 실천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청담의 생애와 활동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미지로 인해 ‘청담’하면 떠오르는 두 단어가 ‘마음’과 ‘정화운동’⁸⁾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논을 내놓아야 하는 논문 쓰기에 가해지는 압박은 적지 않다. 특히 분명한 목적이 부여된 글이어야 하는 제약과 청담에 대한 난삽한 정보는 논문 쓰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

-
- 1) 고영섭, 「청담 순호의 마음 인식과 정화 이해」,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큰스님』, 청담문도회·청담장학문화재단·도선사, 2021, p.10.
 - 2) 오형근, 「청담불교의 핵심, 인육보살 사상」, 『청담대종사전서 제6책』, 2002, pp.16~23.
 - 3) 이종익, 「불교중흥의 기수」, 『청담대종사전서 제6책』, 2002, pp.23~33.
 - 4) 서경보, 「한국불교정화 중흥의 등불」, 『청담대종사전서 제6책』, 2004, pp.34~37.
 - 5) 고영섭, 「청담 순호의 마음 인식과 정화 이해」,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큰스님』, 청담문도회·청담장학문화재단·도선사, 2021, p.11. 주4) 참조; 『청담대종사 열반 5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 논문집: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큰스님』에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6) 신규탁, 「청담 순호의 선사상」,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 서울: 새문사, 2012.
 - 7) 방남수, 「청담 순호 선사의 ‘마음’ 사상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임병화, 「청담 순호 선사의 선사상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8) 유승무, 「청담의 심학과 정화운동」,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큰스님』, p.47.

이 글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지성성’과 ‘실천성’은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다른 거창한 것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지성성과 실천성은 지성과 실천의 성질이나 경향인데, 청담의 사상과 생애에서 보이는 지성과 실천의 특성을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을 것이다. 청담의 이미지와 사상과 생애의 특징이 마음과 정화 운동이라는 두 축을 떠나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 낸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기도 하다.

설령 이 글이 새롭고 독특한 논점을 제시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글에 부여된 목적을 위해 청담의 생애와 사상을 되짚어 보는 것도 조금은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명(所命)을 거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좋은 글말로 논문을 전개하지 못하더라도 한 인간의 생애 동안에 펼쳐진 진솔한 삶의 철학과 삶의 행위를 정리하는 것도, 작지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다. 현학적인 분석이나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의 법호처럼 맑은 안목으로 살펴보면 뜻의 깊이까지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이 글말은 청담 순호의 생애와 사상을 지성성과 실천성의 관점에서 정리하며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담에 대한 다양한 담론보다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놓고⁹⁾ 그의 지성성과 실천성을 살펴보고, 해서 ‘순호의 지성성: 일체의 인식 등’에서는 청담 순호의 ‘나’와 ‘세상’에 대해 ‘한순박한 불도가 걷는’ 깨침의 여러 과정에서 그의 지성성을 살펴보고, ‘청담의 실천성: 일체의 정화 등’에서는 ‘세상을 맑은 눈으로 깊이 있게 밝혀 나가는’ 청담의 일체 정화 운동에서 그의 실천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⁰⁾

9) 청담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청담대종사전서11: 청담대종사의 생애와 사상』(불교춘추사, 2010)을 논의의 중심에 둔다.

10) 청담 순호에서 ‘순호의 지성성’과 ‘청담의 실천성’이라고 하여 지성과 실천에 굳이 불명과 법호를 중심으로 나눈 것은 수행의 측면과 교화의 측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청담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순수한 안목으로 일체를 깨쳐 나가는 과정에서 지성성을, 세상을 밝혀나가는 정화의 과정에서 실천성을 밝혀보겠다는 것이다.

이 글말을 통해, 독자들이 청담의 진솔한 면목에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다가가게 되고, 또 그의 원력이 바로 불자들의 원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글말의 소임(所任)은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II. 순호의 지성성(知性性): 시대와 상황의 인식

지성(知性)은 감각으로 얻어진 지식을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그 지성은 지식과 달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감각과 지각으로 얻은 지식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버리면 그 지식은 자신과 타자의 삶의 발전에 무의미할 것이다. 단순한 알아차린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 품성을 알아차린 지식은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성계의 한 구절인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의 ‘증지(證智)’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증지(證智)의 ‘지(智)’는 ‘증오(證悟)의 지(智)’ 곧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지닐 수 있는 대경지(對境智)여서 삼세의 사(事)를 요해한다. 지(知)는 지(智)를 가지고 알 수 없다. 진지(眞知)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智)를 가지고 증할 수 없다. 지(智)와 지(知)가 본래 그 체를 달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智)의

이다. 법호로 사용하는 청담은 성산 이씨 청담공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일제에 의해 우리의 말과 민족혼이 송두리째 꺾이는 때에 스님이 이를 애석히 여긴 나머지 청담공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청담대종사전서11』, p.28.

작용은 성인(聖人)에 국한되어 리(理의)에 대응하여 주객 관계에 있다. 이에 비해 지(知)의 본체는 범과 성에 통하고 리(理)와 지(智)에 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영성(靈性)이다.¹¹⁾ 그러므로 지성은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근원적인 범성(凡聖)에 통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성질의 지성이어야만 진정한 지성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증지(證智)의 지(智)와 소지(所知)의 지(知)가 다른 경계가 아닐 때 진정한 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다룰 ‘순호의 지성성’은 이 지경에서 완성된다. 해서 이 장에서 다룰 순호의 지성성은 범명을 받은 이후의 지성성에 한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담이 걸은 길을 보면 청담의 ‘생이지지(生而知之)’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해서 생이지지적인 청담의 삶의 여정은 세상에 대한 삶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서 청담의 삶에서 순호라는 범명을 받은 이후와 이전을 망라한 ‘순호의 지성성’을 일별해봄으로써 청담의 지성성은 더욱 빛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명명한다.

1. 열린 사고, 세계의 인식

청담의 생이지지와 같은 면은 청담의 유년기에 대한 회고에서 다음의 두 가지로 확인된다. 첫째는 불살생에 대한 저항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저항이었다. 청담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 눈을 감고 마구 울어댔고, 물고기의 배를 찢는 것을 보아도 얼굴을 찡그리고 견디지 못했다.¹²⁾ 청담은 자비심이 가득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청담은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

11) 아라키 겐코 저·심경호 역, 『불교와 유교』(서울: 예문서원, 1999/2007), pp.157~158.

12) 『청담대종사전서11』, p.28.

었다고 할 수 있다. 천성이 선한 청담은 세상에 대해 열린 사고를 하고 있음은 서당에서 일어난 서당 벗의 외모 조롱에는 참지 않고 응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서당 벗과의 다툼에 대한 전후 내막은 들어 보지도 않고 서당의 선생은 청담을 내쫓는다. 청담은 이와 같은 서당을 다니지 않고 미련 없이 그만둔다. 그리고 보통학교로 입학한다. 이때가 그의 나이 17세 때였다. 이때는 바로 기미년 독립 만세 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날 때였다. 이로 인해 청담은 옥고를 치르게 되면서 진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나라를 구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문을 배워야 하고, 당시 선진국이었던 일본 유학의 필요성도 절감한다. 우리 민족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이지만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 진주보통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의 청담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청담의 열린 사고는 타고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지경이다. 3·1운동 때에 만세에 앞장을 선 것도 그렇지만 진주공립농업학교 시절,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교화하는 과정도 그의 열린 사고의 일면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주권마저 일인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같은 민족 더군다나 같은 학교 교우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우리는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강철같이 단결하여 그 싸우는 힘을 나라의 독립을 찾는 데 써야 한다.”¹⁴⁾ 이것은 청담의 사회 교화의 한 면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 이것은 청담의 열린 사고의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열린 사고가 아니면 일체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타자들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 열린 사고로 세상을 만나는 이에게는 세상의 문제의 원

13) 『청담대종사전서11』, pp.33~35.

14) 『청담대종사전서11』, p.39.

인을 찾아보게 된다. 그즈음에 청담은 훗날 청담 사상의 중핵이 되는 ‘마음 사상’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된다. 청담 생애에서 주요한 전환점이 되는 박포명 선사와의 만남이다.

청담이 서장대 기슭에서 책을 읽다가 목이 말라 인근의 호국사를 찾았다. 물을 끌걱 마시는 청담을 보고 박포명 선사는 “왜 사람은 물을 마셔야 하느냐? 갈증이 심했나 보구나. 그러나 마음이 타는 것을 물로 식힐 수는 없지. 왜 불이 뜨겁고 물이 찬지 아느냐? 마음이 뜨겁고 얼음이 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라는 선사의 이 말씀에 청담은 곧바로 질문한다. “스님,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그 마음을 이리 내어놓으면 고쳐주지.”¹⁵⁾ 박포명 선사의 대답은 불자들에게는 제법 알려진 익숙한 문답이다. 바로 달마와 혜가의 문답에서 차용되었다는 것 정도는. 이렇게 청담이 처음 접한 마음 법문은 청담 사상의 중요한 골조가 되었다.

청담에게 있어 ‘마음’은 궁극적 실재이며 상징어였다. 청담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자기 ‘마음’을 깨치는 일이다. 이 마음을 깨쳤을 때가 곧 부처이다. 우리 중생이 할 일은 이 마음을 깨달아 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청담은 이와 같은 법문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청담은 ‘마음’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파악했다. 실재하는 모든 것의 주체를 ‘마음’으로 본 것은 불교적이지만 동시에 주체적이다. 몸이 물질적 연기작용의 현상이라면 ‘마음’은 정신적 연기작용의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無我)이며 공(空)하다. 마음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다. 조건이 되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신비한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며 자유자재한 것도 아니다.¹⁶⁾

15) 『청담대종사전서11』, pp.41~42.

청담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있는 마음이며, '나'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라고¹⁷⁾ 말하고 있다. 청담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더불어 청담이 말하는 '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나'는 어디까지나 '나'로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를 다 부정한 그만큼 '나'의 존재를 강력하게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로서만이 '나'이지 그 밖에 어느 것과도 섞여 있는 존재일 수는 없다. 이 '나'는 싯다르타 태자가 외친 '천상천하유아독존'의 '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허공을 초월한 존재이므로 차원 이전이고, 질량 이전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존재이므로 우주가 파멸된 후에도 없어질 수 없는 영원의 실재이며 일체를 초월한 실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청담이 마음자리는 곧 태초 이전의 차원이며 순수한 삶이고 인간의 근본이라고¹⁹⁾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담이 말한 '나'는 동아시아 불교 전통의 '참나'라고 할 수 있다.

열린 사고를 하는 청담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박포명 선사를 만나 그의 사상의 근저인 마음 사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2. 교학의 섭렵, 인식의 확장

청담은 마음 법문을 접한 청담은 불문에 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인사 백양사를 찾아갔으나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못해서인지 출가가 이뤄

16) 방남수, 「청담 순호 선사의 '마음' 사상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iii, v.

17) 『청담대종사전서11』, p.129.

18) 『청담대종사전서11』, pp.129~130.

19) 『청담대종사전서11』, p.187.

지지 못하고 23세 때 일본 쇼운지에서 일차 출가를 한다. 6개월간의 짧은 행자 생활을 하고 귀국하게 되는 25세에 박영호 스님을 인연으로 옥천사에서 수계를 하게 된다. 이때 순호라는 법명을 받는다. 청담의 옥천사 출가가 사실상 2차 출가라고 할 수 있는데, 출가 은사가 탄허·운허 양사의 비문에 의하면 박한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청담 문도의 자료에 근거하면 ‘청담의 옥천사 출가에 있어 은사는 남규영’이라고 하는 점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²⁰⁾

불문에 든 청담은 본격적으로 교학의 섭렵에 들어가게 된다. 청담의 마음 사상은 다시 세부적으로 전통 불교학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담이 금강경, 신심명, 반야심경 등 경전의 역해를 통해 교학의 일선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전통 교학의 섭렵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청담대종사전서제11책』의 생애와 사상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자. 청담은 자신의 학문을 박한영이 운영한 개운사 대원불교전문강원에서의 공부를 공자의 입지에 비유하고 있다. 공자는 ‘삼십이입(三十而立)’에 이입(而立)하였지만 자신은 20대에 입지(立志)하여 30대에는 그 뜻을 실천에 옮기는 인고의 시기였다고 술회한다.²¹⁾ 생이 지지 정도의 학문적 소양을 가진 청담에게 개운사에서의 학문 수학은 그의 인식의 폭을 더욱 넓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 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담은 사교를 익히는 중에 강원 학인을 위해 탁발을 하거나 정통불법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학인대회를 열고자 40여 개나 되는 강원을 찾아다니며 동지를 규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담의 저서 목록을 채우고 있는 선입문, 금강경오가해, 영혼의 목소

20) 진관, 『청담대종사의 실천불교사상연구』(서울: 초롱출판사, 2013), p.15.

21) 『청담대종사전서11』, p.50.

리, 금강경대강좌, 혼자 걷는 이 길은, 마음의 눈을 뜨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신심명 등은²²⁾ 25~28세 동안 닦은 전통강원의 수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청담 선사는 석전 영호 장로의 제자였고 또 그 문하에서 이력을 보았다고 하지만 학습의 가풍은 따르지 않았다. 그 보다는 오히려 수덕사 만공 선사와의 만남이 향후 청담 선사의 불교 사상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²³⁾ 물론 교학에 그의 선지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이 시기에 학인 대회를 열거나 만주로 가서 수월 선사를 친견하는 것도 청담 순호의 학문에 대한 자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앞의 체화, 선으로 완성

청담은 자신이 불경 공부를 마치자 수선을 위해 어떤 스승을 찾아나설 것인지 주변의 수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교학 공부를 마쳤으니 당연히 수선할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도반의 수좌들이 청담의 향후 행로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은, 청담의 자질이 당시에 동학 사이에서는 우뚝 솟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오대산으로 갈 것인지, 예산의 정혜사로 갈 것인지를 궁금해하였다는 것은, 당시 오대산과 정혜사가 한국 선불교의 중심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때 청담이 택한 곳은 근대 고승 만공(滿空)이 주석하고 있는 정혜사였다. 청담의 진술을 조금 더 들어보자. “나는 근대의 고승 만공 스님이 계신 정혜사로 내려갔다. 삼교에서 차를 내

22) 『청담대종사전서11』, pp.302~303.

23) 신규탁, 「청담 순호의 선사상」,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서울: 새문사, 2012), p.366.

러 정혜사를 찾아 들어간 날이 마침 선달 그림 밤이었다. 만공 스님과 함께 밤을 지새워가며 기울어진 한국불교의 장래를 염려하는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번 불교중흥의 결의를 되새겼다. ~ 정혜사 선방에서 3년여를 정진하고 나니 내가 견성(見性)했다는 소문이 전국의 승려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²⁴⁾ 이때 청담은 다음의 찬불게를 짓는다.

上來佛祖鈍痴漢 安得了知茲邊事
 붓다 조사들은 둔하고 어리석었으니,
 어찌 이 현학의 이치를 알았을까.

若人問我何所能 路傍古塔傾西方
 내게 무얼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길가 옛 탑은 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리라.

청담은 자신의 첫 계송을 오도송이 아닌 찬불계송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계송을 본 만공은 견성했다고 인가를 한다. 그렇지만 청담은 이를 겸손하게 사양하고 앞으로 견성했다는 소문을 더는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떠나게 된다.²⁵⁾

스승의 인가를 겸손하게 사양하는 청담을 우리는 만났다. 이것은 청담의 본바탕을 더욱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내 안에 미세번뇌조차 없어야 진정한 견성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안다. 찬불계송 한 수 지었다고 그 경계가 견성의 경계라고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데서 청담의 순수가 빛난다. 열린 사고로 청담은 세상

24) 『청담대종사전서11』, pp.51-52.

25) 『청담대종사전서11』, p.52.

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부정함을 개선하려는 정화 의지로 세상과 맞서고 있다. 거기에는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담의 지성성이 극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담의 지성은 찬불게송 구절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게송 결구의 선언은 청담의 대답이자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길가의 고탑은 서쪽으로 기울어졌네.” 이것은 단순한 서술이라고 보면 청담의 지성성을 읽을 수 없다. 탑은 붓다의 사리를 모신 무덤이다. 오래된 무덤은 이제 기울어져 있다. 그 탑은 본래 고향인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왜 서쪽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붓다의 본래 집으로 향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붓다의 본래 집이 어찌 서쪽이냐고 묻지 말라. 서쪽은 붓다의 보신인 아미타불의 세계이자 우리 불자들이 돌아가는 곳이다. 돌아가는 곳으로 기울어진 고탑은 바로 청담 자신인 것이다. 그래서 청담은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청담의 보림(保任)은 본래로 돌아가는 길이 되고 있다. 청담 순호의 지성성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청담의 오대산행이 본래로 돌아가는 길임과 동시에 끝없는 고행의 길이었다. 청담이 다시 태어나도 이 길(불교정화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²⁶⁾ 그는 이미 본래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일체의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다. 청담에 대해 “청담 선사의 경우는 같은 선승이면서도 가풍이 상당히 다르다. 청담 선사는 일반 재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 법문을 잘 했다. ‘마음’을 소재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에 탁월한 기량을 발휘했다. 소위 ‘마음 법문’이라는 새로운 법문 형식이 선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불교를 어렵게만 여겼던 당시의 대중들을 불교로 귀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파(祖派)의 은법(恩法) 관계로 보아서 석전(石顛)의

26) 『청담대종사전서6』, p.80.

법을 이었지만, 구암사 사문의 가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⁷⁾고 하는 평은 의미 있다.

해서 청담은 입적하는 그 순간까지 법을 전하며 불교 수행자로 붓다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거기서 청담의 지성성은 빛난다.

4. 호국불교와 종단탈퇴의 지성성

1) 호국불교의 지성성

한국불교를 호국불교라고 부르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여한 의승(義僧)의 사례를 들곤 한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총칼을 들고 살상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 것을 호국불교라고 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호국불교에서 말하는 ‘호국’은 『호국인왕다라니경』 등에서 설명하는 ‘호국행법’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동안 ‘호국’에 대해 ‘호국불교의 전개와 의미’에 대해 “한국불교사의 변화를 추동한 조선시대 의승군이 보여준 ‘호국’을, 주체의 능동성과 적극성에서 비롯된 ‘참여’로 나아간 불교로 이해하는”²⁸⁾ 진일보한 연구도 있으며, 또 “국왕이 주체가 되는 국가불교와 달리 불자가 주체가 되는 참여불교는 역사 안에서 참여하고 시대 속으로 동참하는 불교이다. 역사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진제문(眞諦門)의 입장에서 이뤄지는 국왕의 호법(護法)과 달리 역사 안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속제문(俗諦門)의 입장에서 이뤄지는 불자의 호국(護國)은 참여불교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것은 ‘근왕’(勤王)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왕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

27) 신규탁, 「청담 순호의 선사상」,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서울: 새문사, 2012), p.378.

28) 고영섭, 『한국불교사탐구』(서울: 박문사, 2015), p.250.

려 국왕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자화된 국가불교의 ‘호법’과 달리 불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주체화된 참여불교의 ‘호국’이었다.”²⁹⁾라고 하며 주체화된 참여불교의 호국을 설명하기도 한다.

청담의 호국사상의 실천은 ‘천 배고 만 배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자신의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사참(事懺)의 참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참의 참회는 호법의 개념을 『인왕호국반야경』의 “나라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 임금은 ~ 도량을 장엄하게 꾸며 백 개의 부처님 형상을 모시고 백 개의 보살상을 모시고 백 개의 사자좌에 백 명의 법사를 청하여 이 경을 설하라. 모든 자리 앞에는 갖가지 등을 켜고 갖가지 향을 사르고 여러 가지 꽃을 흠으며, 의복·와구(臥具)·탕약·방사(房舍)·자리(床座) 등 일체 공양하는 일로 널리 공양하며 매일 두 때(二時)에 이 경을 읽어라.”³⁰⁾라고 하는 행법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해서 청담의 참회사상은 진정한 ‘호국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청담은 1967년 주석하고 있던 우이동 도선사에 호국참회원을 건립한다.

“호국참회불교란 신라불교의 통일염원, 고려불교의 호국염원, 조선불교의 구국염원, 현대불교의 평화염원에 입각하여 미신에 근접된 불교가 아닌 실천불교, 관념적 요소가 아닌 생활불교로 불교재흥을 기필코 꾀하지는 청담 큰스님의 서원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우리민족에게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상”³¹⁾이라는 상좌의 서언이 잘 설명하고 있다. “국민이 참회할 때 나라가 밝아진다”³²⁾고 설하는 청담이 호국참회원을 건립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호국참회원의 건립은 청담의

29) 고영섭, 「국가불교의 ‘호국’과 참여불교의 ‘호법」, 『불교학보』 제62집(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4), p.100.

30)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卷下(T8, p.840a).

31) 『청담대종사전서6』, p.10.

32) 『청담대종사전서11』, p.205.

실천성적인 측면에서 언급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청담의 지성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 종단탈퇴의 지성성

정화 종단의 아이콘과 같았던 청담은 1969년 돌연 조계종 탈종을 선언한다. 청담이 심혈을 기울인 조계종을 탈종한 것을 일부에서는 종권욕이라고 비하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청담의 지성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다. 그해 7월 5일 청담은 불교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유신재건안을 제출한다.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 청담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대략 이렇다.

“불교정화와 현대화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유신재건안’을 안건으로 제출하고 이의 실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애원에 가까운 나의 호소를 현 종단이 무참히 묵살했습니다. 나는 한 달여를 곰곰 생각한 끝에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 종단이 너무도 현실을 모를뿐더러 또 알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참다못해 스스로 종단을 나와 나 혼자만이라도 시급한 불교증흥의 대업을 이룩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³³⁾

청담의 탈종은 청담 지성을 증명하는 더할 수 없는 증명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좋은 의견을 낼 수는 있다. 또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시절 인연을 탓하고 체념하기 쉽다. 하지만 청담은 그것은 실천해야 하는 분명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혼자만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과감하게 탈종을 선언한 것이다. 청담이 조계종

33) 『청담대종사전서6』, p.71.

을 탈퇴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에게 가장 큰 타격이라는 것도 청담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반생은 조계종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단심(丹心)의 생이었기 때문이다.³⁴⁾ 물론 멀지 않아 종단에 복귀하여 활동하였지만 삶의 철학을 삶의 실천으로 옮겨놓는 지성이 진정한 지성이라고 볼 때 청담 순호의 지성성은 이쯤에서 더욱 빛난다고 하겠다.

Ⅲ. 청담의 실천성(實踐性): 승가와 신도의 정화 등

청담을 규정하는 ‘정화’라는 어휘는 지극히 보편적인 어휘의 하나에 불과하다. 미몽에 빠진 나와 남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오염된 나와 세상을 맑히는 것은 종교인 이전에 일체 인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정화라는 어휘는 결코 청담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청담의 삶은 교단 정화 등 정화라는 어휘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청담은 입산한 1926년부터 정화 운동의 산물인 1962년 통합종단 등장까지 지속적으로 정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청담의 정화 운동은 조선불교 학인대회(1928), 선종 수좌대회(1935), 봉암사 결사(1947~1950), 정화 운동(1954~1962) 등으로 줄기차게 이어졌다. 20대 이후의 삶은 정화 불사의 행보라고 할 수 있다.³⁵⁾

불가에 입문한 이래 계속된 정화 운동으로 청담은 정화의 화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청담이 출가 이전 보통학교나 농림학교 시절에서

34) 『청담대종사전서1』, p.251.

35) 김광식, 「청담의 불교현대화 사업과 계승 정신」,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큰스님』, 청담문도회·청담장학문화재단·도선사, 2021, p.80, 주2).

실천한 만세 운동이나 학생 운동도 광의의 측면에서 보면 정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이 글은 청담 정화 운동을 출가 이후의 운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출가 이전이나 출가 이후의 종교 간의 대화나 세계불교지도자대회 등과 같은 차원도 정화 운동으로 넓혀 보려고 한다. 해서 일체의 정화라고 제목을 붙였다.

일체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불교 교학은 오온이나 십이처·십팔계 등이 있다. 색·수·상·행·식의 오온 등이 일체라는 것은 다른 언표가 아니다. 인간의 사유와 같은 주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는 나와 세계이다. 이 일체는 주객이라고 할 수 있는 나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게 되면서 실천한 청담의 사회적인 행위는 다 정화 운동이라고 보고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여 앞으로 인해 일어난 깨침의 실천인 정화 운동 등에 대해 시기별·개념별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체의 회복

청담의 실천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서당 시절 “늘 같이 공부하는 서우(書友) 중의 한 아이가 힘이 무척 세어서 나를 놀리고 때리고 하여 아주 못살게 굴었다. 늘 나는 참아왔고 나라는 아이를 아무리 놀려도 반항도 못 하는 당하기만 하는 아주 바보로만 취급해 버렸다.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보고 ‘부영이, 부영이’라고 놀려댔다.”³⁶⁾ 청담은 “그 때 난 너무도 참을 수가 없어 그저 내 있는 모든 힘과 주위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서 나를 놀려대는 그 아이를 때려주었다.”³⁷⁾ 요즘의 왕

36) 『청담대종사전서11』, p.30.

37) 『청담대종사전서11』, p.30.

따, 이즈매 같은 현상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다. 왕따를 당한 이들을 보고 왕따 당할 만하다고 기성세대들이 쉽게 말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된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인육보살로 칭송되는 청담의 어린 시절에 청담은 분연코 일어나 잘못하는 이들을 응징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고 참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보아넘기는 것은 용감하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뒷날 청담의 조계종 탈종과도 이어지는 듯한, 잘못을 용인하지 않는 자세는 실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청담의 행동은 주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를 회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굴종의 삶이고 노예의 삶이 된다. 청담은 지성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문에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이지만 독립 만세를 부를 때 앞에 앞자리에 나서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17세 되던 기미년 이튿 봄, 당시 진주에서는 재판소 옆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자고 약속되었다. 그곳에는 나라 없는 슬픔에 잠겨 살던 민족의 울분을 간직한 젊은이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태극기를 가슴속에서 꺼내면서 누가 맨 앞장서서 이 태극기를 들겠냐고 외쳤다. 청담은 생애 처음 보는 국기였다. 청담은 감격에 넘쳐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 순간 내가 들겠노라고 했다.³⁸⁾ 그렇게 해서 청담은 만세 대열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그 결과 청담은 붙잡히게 되고 온갖 만행을 당하여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받게 되었다. 청담의 정화 정신은 결국 정의감의 발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 42세 무렵 속리산 복천암에 있을 때 독립운동 금강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상주경찰서에 투옥되어 심한 고문 끝에 이질에 걸리는 고통을 받았지만 극복해내는 모습은

38) 『청담대종사전서11』, p.36.

청담의 정의로운 의지를 볼 수 있다. 이때 요양을 위해 찾아온 속가의 전처를 돌려보내는 모습은 죽음으로라도 출가자의 본분을 올곧이 지키려는 청담의 의지이자 실천성의 극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타의 정화

청담은 종단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후 불교 정화 운동의 3대 지표를 제시하고 활동하였다. 하지만 청담의 정화는 바른 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정화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교단과 사회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1) 자신의 정화

청담이 자신의 정화를 하게 된 것은 출가 이후 만난 둘째 여식과의 인연으로 인해서였다. 그렇지만 청담이 둘째 여식과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미 자료에서 많이 밝혀져 있고 세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청담이 둘째 여식과의 인연의 씨앗을 뿌린 사건 자체는 출가 승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담이 자신을 정화한 것은 초기 불교 교단에서의 사연과도 대단히 유사하다. 『사분율』의 사바라이죄의 첫째 항목은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이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이 제정되게 된 동기는 칼란다카 마을에 사는 수디나 장자의 아들인 수디나 비구와 관련이 있다. 수디나 비구는 비구들과 함께 그의 고향 칼란다카 마을을 방문했다. 그의 어머니는 수디나 비구에게 속가로 돌아올 것을 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회입할 수 있는 때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그때가 되면 단장을 하고 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때가 되자 수디나의 어머니는 수디나의 처소로 가서 집안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며느리에게 자식이나 하나 두어 집안의 종자를 끊이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간청한다. 그러자 수디나는 그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 수락하게 된다.³⁹⁾ 이때만 해도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수디나 비구는 그것을 허락한 것이었다.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청담이 둘째 여식과의 인연이 맺게 된 사연과 흡사하다. ‘설령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자...’ 이런 심정으로 청담은 아들을 하나 낳아 달라는 모친의 청에 따라 ‘불음계’를 어기게 되었다. 이후 청담이 오대산 상원사에서 진주 속가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다. 정혜사를 경유한 봉합 속에 그 사연이 들어 있었다. 전처가 딸을 분만했다는 것이었다. 청담은 그날부터 적멸궁으로 올라가서 백일기도를 드렸다. 지옥에라도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각오한 청담은 그때 죽음을 택해야만 했다⁴⁰⁾고 생각하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백일기도로 참회하며 법체(法體)의 정화를 이루었다. 이후 둘째 여식 묘엄은 출가해서 한국불교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청담의 인연은 한국불교의 대보살을 생산하기 위한 진통이었지만 청담은 법체의 정화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다.

2) 승가와 교단의 정화

승가는 출가자들의 화합된 모임으로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식차마나의 다섯 부류로 구성된다. 한국불교에서 입문하게 되면 초심의 사미와 사미니는 십계를 받고 비구·비구니는 『사분율』의 250계·348계를 받는다. 계를 받았으면 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렇지만 그 계가 잘 준수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음계라고 할 수 있다. 출가 사문이 청정독신이 아닌 취처, 대처의 삶을 사는 승려가

39) 佛陀耶舍共竺佛念等譯, 『四分律』(T22, pp.569c28~570a24).

40) 청담, 『청담대중사전서11』, pp.19~20.

용인되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방이 되자 가난한 비구들이 정당하게 내세우는 정화주장조차 빨갱이로 몰아세우기까지 하는 지경이었다.⁴¹⁾ 청담이 내놓은 승려의 조건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첫째 독신, 둘째 불음주와 불음행, 셋째 3인 이상 단체로 3년 수도, 넷째 연령은 만 25세 이상과 그 외에도 살생을 한 사람이나 도둑질을 한 사람은 승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²⁾ 넷째의 25세 이상을 제하고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건이었다.

청담이 불교 정화 당시 내세운 “불법에 대치 없다”라는 슬로건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지 않은 현실을 묵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성인이고 용자라고 할 수 있다. 만 25세 이상은 현재의 학제를 참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승려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강원이나 동국대학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비구·비구니계를 받는 것을 보면 이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신과 불음주·불음행이 지켜지지 않는 승가는 승가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불음주 등의 파계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대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⁴³⁾ 볼 때 승가 정화를 외친 청담의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 하나 승단 외에 교단, 혹은 종단의 신도 대중의 정화를 청담은 주장하고 있다. 청담은 1962년경 우이동 도선사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된 신도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당시 신도가 700세대가 있었

41) 『청담대종사전서11』, p.166.

42) 『청담대종사전서11』, p.84.

43) <http://www.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8> 2021.7.20. <불교저널> “해남 대흥사 일부 스님, 방역 위반 음주 ‘몰의’ 대흥사 일부 승려들의 음주 몰의에 대한 뉴스는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는데, 거의 다 미신불교, 무당불교를 하고 있었다. 청담은 신도 정화에 나섰다. 도선사 신도는 미신 믿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불공도 다른 때는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함께하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굶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니 밥만 자꾸 때 없이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제가끔 일심으로 마음으로 참회하라고 가르쳤다. 처음 미신불교를 하던 70세대가 다 절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금세 1만 5천 세대가 되고 매월 500세대씩 늘어나고 있다.⁴⁴⁾ 교단 정화에 대한 청담의 가르침은 언제 들어도 귀감(龜鑑)이 된다.

“지금도 우리가 정화한다고 이리지만 교단 종풍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이제 무수한 도인이 나오도록 하느라고 전체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은 기어코 해놓았으니 남한테 나쁜 과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시기심(猜忌心)이 있고, 해물지심(害物之心)이 있으면 개가 짖는다. 과거에는 모두 남에게 손해를 주고 핍박을 주어서 그 업이 남아있어 개가 짖는다. 가령 사냥꾼이 아무리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다녀도 개가 틀림없이 그 사람만 오면 문둥이가 오는 것처럼 짖어, 사람은 속여도 개는 속일 수 없는 모양이다.”⁴⁵⁾

‘정화의 피로감’이라고 할까 청담 또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가 짖듯이 세상 사람들이 승단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개가 짖는 것에 대해서는 20대 후반 수월 선사를 만나러 갔을 때 호랑이와 함께하는 수월에 비해

44) 『청담대종사전서11』, p.211.

45) 『청담대종사전서1』, p.215.

자신에게는 개가 짚는 것을 보고 청담은 크게 깨쳤다. 그것이 훗날 청담으로 하여금 승가와 교단의 정화에 나서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3) 국가 사회의 정화

처음에는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내가 집을 버린 것은 불도야말로 참다운 독립의 길이며 세계평화의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⁴⁶⁾ 청담의 불교 수행은 곧 국가 사회의 정화로 세계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담은 인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불사를 작여(作興)하고자 한다.

첫째, 영원불멸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생사의 고통을 초극하여 안심입명처를 얻음으로써, 치열한 생존 경전이 빚어내는 전쟁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조절하여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한다.

둘째, 생사윤회가 지속됨을 확신케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서원력을 발휘케 한다.

셋째, 인과응보는 우주 만유가 흥망성쇠하는 법리이며 진리임을 철저히 신해(信解)케 하여 인류로 하여금 신념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류사회의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이 인연 공덕으로 일체 중생과 더불어 다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⁴⁷⁾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청담은 불교 내외의 중생들을 만나서 설법하고 글을 썼다. 청담은 다른 종교인들과 교류도 하면서 열린 다원사회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진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도, 단테에 의해서도 이야기되어야 하며 미켈란젤로에 의해서도 부각되어야 한다.”⁴⁸⁾ 이

46) 『청담대종사전서11』, p.164.

47) 『청담대종사전서1』, p.230.

와 같은 청담을 강원룡 목사는 “20세기 해방 후 불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승려로서 가장 추천하는 인물은 단연 ‘청담’이라고 하며, ~ 청담을 진짜 어른이라고”⁴⁹⁾ 추모하고 있다. 이렇듯이 청담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입적 하루 전날까지도 이화여대 등 여러 곳에 법회를 함으로써 입적을 재촉하게 되었다는 증언은 그의 실천성을 특징을 증명하고 있다.

3. 교단의 조직과 활동 영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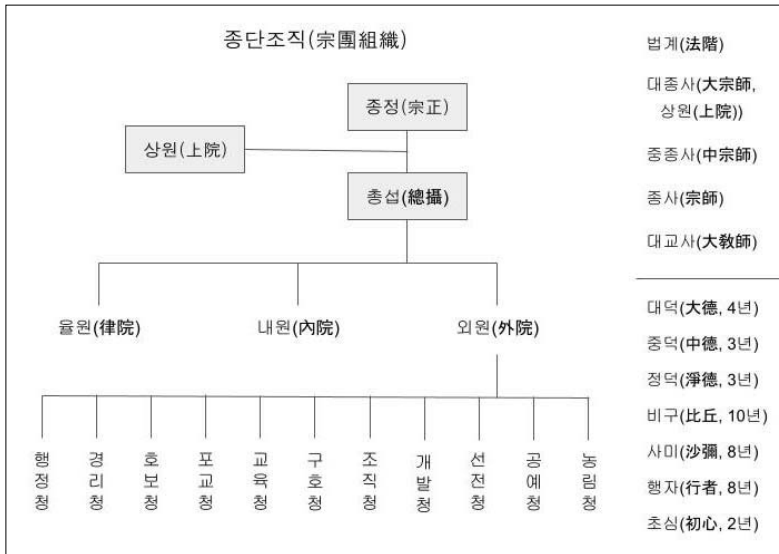
청담은 청년 시절부터 불교 정화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왔다. 1928년 각황사에서 운허 등과 함께 조선불교학인대회를 열었고, 1931년에는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1회 수좌대회에도 참석하였으며, 1935년에는 선학원에서 선부흥대회를 조직하고 종단기구를 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45년에는 종단의 진로와 구성에 대한 영산도(靈山圖)를 구성하게 된다. 1948년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였고, 1954년 6월에 선학원에서 불교교단정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효봉의 요청으로 참여하며 현대 시기 불교정화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이때 도총섭에 임명되고 청담이라는 호를 처음으로 사용한다. 이후 청담은 총무원장, 종정 등을 역임하며 조계종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이바지하였다. 청담의 정화운동이나 중생 교화와 관련된 청담의 불교 실천은 적지 않으므로 교단의 조직인 영산도와 대회 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실천성을 살펴보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48) 『청담대종사전서1』, p.106.

49) 『청담대종사전서11』, pp.259~261.

1) 영산도의 구성과 특징

영산도는 해방되는 해에 처음 구상하고 1954년 8월 선학원에서 열린 제1차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에서 영산도 구상에 대해 대중들에게 설명하였다.⁵⁰⁾



위 영산도⁵¹⁾에는 내원을 교단의 중심에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십년간의 참선 수행을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면, 참선 수행 중심의 교단임을 표방하는 것이고,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행정조직은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의 삼원에 호계원, 중앙종회, 원로회의 등이 있는데, 청담의 영산도에는 행정조직을 외원으로 총괄하고 내원과 율원이 종단의 승가중

50) 『청담대종사전서11』, p.323; pp.249.~151.

51) 『청담대종사전서11』, p.170.

을 위한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율원은 현재의 호계원과 같은 조직으로 ‘율행=정화’의 개념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승가의 정화에 대한 청담의 깊은 관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2) 세계불교지도자대회에 참여

청담은 내적인 승가와 교단의 정화에 진력하는 한편 세계불교지도자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된다. 1956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도대회에 효봉·동산과 함께 참가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1958년 11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불교도대회에 금오·동산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어 1961년 11월 14일에서 24일까지 열린 제6차 세계불교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1966년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본 정부 초청으로 방일하여 사또 수상 및 전 수상과 면담한 것을 비롯하여 불교계 인사들과 교류하였으며, 도쿄대학에서 ‘불교사상으로 본 인류의 구제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1970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불교지도자대회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장로원장에 추대되었다.⁵²⁾

1970년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지도자대회의 의의로는 한국불교가 다른 여러 나라의 종파적 유형과는 달리 석가교법의 원본적 성질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발전한 세계무아의 통일불교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⁵³⁾ 해서 청담은 한국불교는 석가종이라고 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⁵⁴⁾

52) 『청담대종사전서11』, p.320. 연보 참조.

53) 『청담대종사전서11』, p.103.

54) 『청담대종사전서11』, p.178.

또 대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불교적 이데올로기의 기본 강령을 구현할 것을 결의한 것이 눈에 띈다.

- ①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본질적 위엄은 인격의 자율적인 능력에서만 확립된다.
- ② 소망하는 궁극적 진선미는 사상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취되며, 또한 사람들의 소망이 안전하게 달성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진리이다.
- ③ 현재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한다.
- ④ 모든 사람이 그가 타고난 자연적인 자질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지향한다.
- ⑤ 모든 사람에게 보다 큰 안전과 경제적 여유를 달성케 한다.⁵⁵⁾

위 강령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가 더이상 산속에 은둔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불교지도자대회의 경험 등은 청담으로 하여금 승가의 대학과 같은 진학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5차 대회 이후에 종비생 제도가 도입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물론 종단의 3대 사업이 도제양성, 역경사업, 포교의 근대화라는 것도 사실은 다 세계의 표준 불경 등⁵⁶⁾ 세계화의 일환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근현대 한국불교에 청담의 사상과 실천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종단을 정화하고 그 기틀을 다지면서, 대내적으로는 세계불교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한국불교의 특성을 파악하

55) 『청담대종사전서11』, p.108.

56) 『청담대종사전서11』, p.172.

여 드러낸 것을 청담의 실천적 불교 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IV. 결어

지금까지 청담 순호의 지성성과 실천성을 살펴보았다. 청담에 대한 이미지는 마음과 정화로 표현될 정도로 강렬하다. 이 글은 위의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 범명과 범호를 지성성과 실천성의 관형어로 놓고 ‘순호의 지성성’과 ‘청담의 실천성’을 살펴보았다.

순호의 지성성은 ‘일체의 인식’이라는 부제로 해명하고자 했다. 범호를 관사(冠詞)로 놓았지만 출가 이전의 청담의 세상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탈종이라는 최강의 수를 두는 생애까지 일체의 인식적인 측면에서 그의 지성성은 열린 사고로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 개운사강원에서 사교(四敎)와 대교(大敎)를 보는 교학의 섭렵에서 그의 지성성의 특징을 살폈다. 교학은 붓다의 말씀이라며 참선은 붓다의 마음이라는 불교 수행의 진수를 닦는 과정 속에서 순일무잡한 청담의 속내를 볼 수 있었으며, 호국불교의 전개와 종단의 탈퇴라는 강수로 그의 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청담 순호의 지성은 본질의 지성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청담의 실천성은 ‘일체의 정화’라는 부제로 풀었다. 앎의 철학대로 삶의 행위를 하는 학행일치, 언행일치의 실천관을 여실하게 청담은 보여주고 있다. 먼저 어린 나이에 서당에서의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벗을 응징하거나 독립 만세의 선봉에 서거나 좋지 않은 벗들을 바르게 교정하는 데서 주체의 회복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청담 실천의 핵심인 정화는 나와 남, 나와 승가, 교단, 사회에 고루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 사회의 정화를 위해 교단 밖의 타 종교나 국가 사회의 정화를 위한 그의 실천은 평생을 일관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또

교단의 조직의 시안인 영산도를 창안하는 데서 그의 수행관과 조직관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세계불교지도자대회 참여 등으로 그의 실천적 안목을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지성이 실천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 가까운 청담의 정화 운동의 생애에 대해 대체로 찬양과 존경을 표하는 데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자신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도 종단탈퇴라는 형식을 취했다. 그렇듯이 그가 바라던 종단의 정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그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순수한 정화의 주장은 정화의 대상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거나 그 과정에 부작용까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견도 여전히 상존한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卷下(T8)

佛陀耶舍共竺佛念等譯, 『四分律』(T22)

청담문도회 편, 『청담대종사전서』 제1, 6, 11책, 불교춘추사, 2002/2010.

고영섭, 『한국불교사탐구』, 서울: 박문사, 2015.

신규탁, 「청담 순호의 선사상」,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 서울: 새문사, 2012.

아라키 겐코 저·심경호 역, 『불교와 유교』, 서울: 예문서원, 1999/2007.

진관, 『청담대종사의 실천불교사상연구』, 서울: 초롱출판사, 2013.

- 고영섭, 「국가불교의 ‘호국’과 참여불교의 ‘호법」, 『불교학보』제62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4.
- 고영섭, 「청담 순호의 마음 인식과 정화 이해」,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큰스님』, 청담문도회·청담장학문화재단·도선사, 2021.
- 김광식, 「청담의 불교현대화 사업과 계승 정신」,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큰스님』, 청담문도회·청담장학문화재단·도선사, 2021.
- 방남수, 「청담 순호 선사의 ‘마음’ 사상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신규택, 「청담 순호의 선사상」,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구』, 서울: 새문사, 2012.
- 오형근, 「청담불교의 핵심, 인욕보살 사상」, 『청담대종사전서 제6책』, 청담문도회, 2002.
- 유승무, 「청담의 심학과 정화운동」,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큰스님』, 청담문도회·청담장학문화재단·도선사, 2021.
- 이종익, 「불교중흥의 기수」, 『청담대종사전서 제6책』, 청담문도회, 2002.
- 임병화, 「청담 순호 선사의 선사상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http://www.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8> 2021.7.20.

The intelligence and practicality of Cheongdam Soonho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the objective and
the purification of the object —

Lee, Sung-woon /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This writing considers the intelligence and practicality of Cheongdam Sunho (1902~1971) in his life and thought with the general meaning of his Buddhist name and nick name.

His intelligence is explained in the subtitle 'the recognition of the times and circumstances'. It is found out in his open mind of recognizing that Mind is the subject of the world and in his expansion of Buddhist knowledge with passing Advanced course for four years and Graduate course for three years in the academic course at the Gaeunsa Gangwon (the Sutra School for monks and nuns in Korean temples). Also, it is shown by his cultivating the essence of Buddhism by practicing Seon(Zen) meditation based on the doctrinal teaching, his development for National defence Buddhism and his resolution of the withdrawal from the Buddhist Order. It is clear that his intelligence is the one of essence.

His practicality is discussed in the subtitle of ‘the purification of Saṅgha and the believers’. He exerted himself to recover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 which is known by punishing his friends for wrongdoing in the Village School when young, being at the forefront of Hurrah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correcting his bad friends. Purification is the core of his practice, which should apply to both me and others, both me and Saṅgha, the Buddhist Order and society. He made effort to purify the national society and other religions throughout his life, his creation of Yeongsando for the Buddhist order and his participation in the World Buddhist Leaders Conference, etc. show his consistent practicality for uniting knowledge and conduct.

Key words : Cheongdam, Cheongdam Sunho, Mind, Dharma talk for Mind, Han-young Park, Mangong, Hurrah for the independence, purification, purification of the Buddhist Order.

논문투고: 2022-05-30

심사완료: 2022-06-18

게재확정: 2022-06-25